

김선혜(2014), 입관 전후 청과 조선의 통혼과 시녀 문제

I. 머리말

- 동아시아 전근대사에서 북방민족의 역할에 주목 필요: 우리나라는 한족국가와 북방민족들과 둘 다 대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시각만으로는 어려움 - 북방민족의 역사상(歷史象)을 복원하여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패러다임을 구성
- 북방민족의 통혼
 - 통혼: 혼인관계를 맺는 일 - 국제정치적 수단인 하나
 -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흉노, 위구르, 몽골, 원, 후금 등 북방 유목민족(국가)들의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 북방민족들은 농경국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성향 - 통혼은 경제적 이득을 위한 정치, 군사적 장치들 중 하나
 - 청 제국의 통치에는 중원문화 뿐 아니라 북아시아의 유산이 강하게 작용 (예: 청-몽골 관계)
- 도르곤과 의순공주의 혼인
 - 청-조선 간 유일한 공식 통혼
 - 기존연구 경향:
 - 중국학계: 도르곤의 조선/이민족 지배 정책 관점
 - 한국학계: 여성수난사 및 피해자 시각, 또는 일방적 복종이 아닌 조선의 전략의 일환으로 자주성을 재평가
 - 서구학계: 청조의 통치에 만주족의 민족적 특성 강조 → 이러한 특수성을 국제관계 연구에서도 고려할 필요

II. 청 도르곤의 혼인 요구와 조선 공녀의 출가

1. 도르곤-의순공주 사건 요약 (1650.3.~11.)

- 도르곤 (1612~1650)
 - 청 태조 누르하치의 14남. 태종 홍타이지의 이복동생으로 베이징에 천도하였으며 중국 전토를 무력으로 평정하고, 태종 사후 조카 순치제의 섭정으로 정권을 잡았음
 - “1644년에는 명나라 내분을 이용하여 명의 장수인 오삼계(吳三桂)의 투항을 받아냈으며 그를 선도(先導)로 하여 명나라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에 진격하였으며, 이자성을 토벌하고 북경을 대청의 수도로 삼았다. 이어 중국 전역을 무력으로 평정하였다. 한편으로는, 명나라의 유교적 이념과 정치제도를 도입하여 한인관료(漢人官僚)를 등용하였으며 이들의 충정아래 만주족이 중국대륙을 지배하는 기초를 확립하였다. 도르곤은 이러한 공적으로 황부섭정왕(皇父攝政王)으로 봉해졌고 의황제성종(義皇帝成宗)으로 추존(追尊)되었다. 하지만 그가 1650년 사냥을 하다 갑자기 사망하였고 죽은 뒤에는 순치제에 의해 국권을 찬탈하려 시도했다는 죄목을 받고 모든 작위를 박탈당했다. 128년이 지난 1778년 건륭제(乾隆帝) 때 명예가 회복되어 복권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르곤 [Dorgon, 多爾袞(다이곤)] (두산백과)

1650.3.5. 사은사 내관 나업의 보고: “구왕이 부지를 갖 잃어 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한다.”

- 나업: “현재의 공주는 두 살이다.”

- 사신: “공주가 어리면 종실 가운데 선택해도 무방하다.”

- 조선 조정: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의 제왕들도 행한 경우가 있다.”

1650.3.7. 청 사신의 칙서 2통 - 1통은 정치현안, 1통은 통혼 요청

- “예로부터 번국의 참한 여인을 가려서 비로 삼은 전례가 있으니 ... 조선과 姻親을 맺도록 하기를 바란다.”

1650.3.20. 금림군 이개윤의 딸 선발. 조신의 딸을 시녀로 충당하라는 추가 요구. 이개윤의 딸을 효종의 양녀로 삼아 의순(義順)공주의 작위를 내림

1650.4.19. 섭정왕이 예물을 보내고 산해관에 행차할 것을 알림

- 청 칙사 정명수: “정축년(1637)년의 약혼 이후 황제께서 그만두라 명했던 것은 특별히 관대한 은혜였소. 그러나 근래 조정에서 일을 잘못하여 걱정을 다시 하게 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허물이란 말이요.”

1650.4.22. 의순공주 일행 출발

1650.5.12. 예물 도착

- “조선은 길이 먼데 예절대로 하려면 왕복하느라 시일이 지체될 듯 싶습니다 하기에 ... 특히 나의 뜻을 알리니 왕께서는 이해해주기 바라오.”

1650.5.21. 도르곤이 산해관 밖으로 나와있다가 의순공주가 도착하자 연산에서 맞이하여 당일 성혼

- “도르곤이 의순공주를 매우 기뻐하여 ‘백송골’이라 하였으니, 백송골이란 그 자태가 뛰어나다는 말이였다.”

- 처음에는 기뻐하였으나 북경에 이르러 공주가 예쁘지 않고 시녀가 못생겼다고 힐책: “선간 때부터 본국에 은혜를 베푼 것이 매우 두터웠고, 나도 국왕에게 사사로이 베푼 은혜가 있다. 그런데 번번이 왜적과 혼란이 있다는 핑계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겠다고 청하니 ... 오늘날 일은 그대 나라의 행동을 보려는 것인데, 그대 나라가 정성들여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주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시녀 역시 못생긴 자가 대부분이다. 그대 나라의 불성실함을 여기에서 더욱 볼 수 있다.”

1650.9. “이번 행차의 목적은 오로지 시녀에 있다. 본국이 미녀를 뽑아 보내면 황부왕이 보고 반드시 기뻐할 것이며, 지난 번 의심했던 것도 모두 풀 수 있을 것이다.”

- 여염집에서 시녀를 선발하는 데 대한 조선 국내의 격렬한 반발

1650.11.9. 새로 뽑힌 시녀가 청으로 떠났으나, 도르곤이 사냥하러 갔다가 갑자기 사망, 시녀들은 중간에서 돌아옴

1650.12.9. 도르곤이 국권 찬탈을 시도했다는 죄목으로 모든 작위를 박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짐

1652. 의순공주는 다른 만주 귀족에게 재가했다가 다시 과부가 됨

1655. 청에 사신으로 간 금림군이 순치제에게 간청하여 의순공주 귀국

1662. 의순공주 27세로 병사

2. 동북아시아 역사에서 통혼의 전례, 구례에 대한 역사적 맥락

한(漢) - 흉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고조 때부터 황실의 공주를 보내 흉노를 회유했으나 미봉책 - 원제 때에 남흉노가 한에 복속을 청하며 “한의 황녀를 아내로 얻어 천자의 사위가 되고 싶다” (왕소군)
-----------	--

당(唐) - 토번, 위구르 등	- 화번공주: 당과 국경을 접한 이민족들에게 황실 여성을 보냄 + 이민족의 군주가 당의 공주를 얻어 국내외에서 권위를 과시
고구려 - 북조	- 북조 효문제 등
고려 - 원(元)	- 몽골제국 내의 균형 유지를 위해 여러 부족, 북속국가들과 통혼, 고려를 원의 지배체제 속으로 안정적으로 편입 + 고려왕실 또한 무신집권기에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함
조선 - 명(明)	- 초기에는 원의 제도를 따라, 공녀 선발하여 황제의 후궁이 됨 - 명은 고려-원 관계를 이어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나 정식 통혼은 성사되지 않음

III. 홍타이지 시기의 혼인과 시녀 요구

1. 누르하치-홍타이지 시기 조선과의 관계

- 후금에게 조선은 군사적, 전략적, 경제적으로 중요
- 인조반정(1623): 조선이 명조를 지원 - 정묘호란(1627): 형제관계 - 병자호란(1636): 군신관계
- 세자 인질, 사신 파견 감시, 반청파 구금 등의 정치적 통제 + 조공, 호시무역 등으로 경제적 수요 충족
- 병자호란의 결과로 맺어진 정축조약(1637)에는 내외의 제신과 혼인을 맺는다는 조항 포함

2. 홍타이지의 혼인 및 시녀 진공 요구 (1637.9.)

1637.9. 혼인 조약의 이행 요구

- 인조: “이것은 결코 허락할 수 없으나, 뜻밖에 힐책하는 꼬투리가 있을까 염려되니”
- 비변사: “남조[명나라]가 일찍이 혼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체로 민속이 각기 다르고 습성이 같지 않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사정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일이 어찌 전날과 다르겠습니까.”

1637.11.20. 인조 책봉 시 거둬 재촉 - 인조의 버티기, 미루기 - 11.30. 청 사신 돌아감

1638.4. 홍타이지의 중지 “양국이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당초에 구혼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하니 길이 멀어서 왕래에 폐단이 있겠고 ... 특별히 정지하게 했다.”

- 시녀 진공 요구는 유지

1638.7. 전국에서 창기와 천민 등을 동원해 10명 보냄

1638.8.22. 청 관원: “당초 약속이 사족은 아니었지만 어찌 창천으로 충당해서 보낼 수 있나”

- 조선사신: “혼인은 사족으로 약속하고, 시녀는 양천을 막론하고 영리하여 사환에 합당한 자를 택해서 보냈을 뿐이다.” “나라마다 풍속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기녀는 중원의 양한적과는 전혀 같지 않다. 이름은 비록 관적에 올라 있으나 실은 양민의 여자이다.”

- 시녀 10인은 궁중에서 4인을 들이고 도르곤 등 왕족들에게 1명씩 분배 (원대의 사례와 유사)

- 홍타이지 시기 동안 더이상의 요구는 없었다: 1) 조선의 거센 반발; 2) '만몽연인'에 의한 혼인제도 정착; 3) 조선 여인에 대한 만주 내부의 거부감
- 청-몽골 통혼 사례와의 비교
 - 이와 달리 조선과의 혼인은 청의 정치적 입지, 황권, 군사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조선과의 반발과 같은 역효과

IV. 도르곤의 조선 정책과 혼인 문제

- 도르곤의 對조선 정책: 홍타이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입관 후의 상황에 따라 조선과의 관계를 좀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려는 의도

1. 청의 상황: 입관 (1644)

- 조선 통제 위해 과다하거나 실효성 없는 문제 변경 - 조선의 요구 반영
 - 조선 세자, 왕자 귀환 허락, 소현세자의 죽음과 봉립대군의 즉위 묵인, 조선으로 들어간 여진인 송환 요구 중단, 조선의 반청 정치범 석방
 - 연례 공물 액수 및 사신 접대 비용 경감
 - 입관 직후 식량 요구, 사신을 보내 정치적 현안 조사
- 입관 = 중원 정복 이후 청 입장에서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이 현저히 감소, 경제적으로도 조선에 대한 의존도 감소 → 전통적 조공관계로 변화 의도

2. 조선의 상황: 효종 즉위 (1649)

- 효종 즉위 후 김상헌, 송시열, 김집 등 반청 인사 등용
- 도르곤의 칙서 (1650.3): 혼인 요구와 함께 정식 칙서를 통해 정치적 사안 문제 삼음
 - 칙서 밖 내용: 반청 인사 등용과 친청파 김자점 탄핵에 대한 불만 표시 → 표면적으로는 문제 없이 무마됨
- → 효종의 반청 분위기를 도르곤이 감지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 카드를 사용했을 가능성

3. 도르곤의 개인적 의도

- '황부섭정왕' 즉위, 권력, 지위 급상승: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결혼을 요구
- 호란 당시 조선 왕자들을 인질로 데려가면서 나름의 예의를 갖추어 인조와 조선 왕실의 호감을 샀음. 조선에서도 이를 고맙게 여겨 특별히 예물을 보내는 등 밀접한 관계 유지함

V. 맺음말

- 청 입장에서 통혼은 조선-명 관계를 단절시키고 조선-청 관계를 유지하는 통제수단의 하나
- 홍타이지는 일반적 조공관계 외에 인질, 사신과 더불어 혼인을 통한 직접적 정치통제로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청이 명을 대체했다는 상징적 정치효과를 기대, 그러나 역효과를 파악하고 중단
- 도르곤은 입관 이후 청과 조선의 관계를 좀더 장기적, 안정적인 조공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했으나 효종 즉위와 반청 인사 등용으로 적극적 조치 시행, 그것이 통혼 요구
- 도르곤 사후 다시 시도되지 않고 폐지 → 입관 이후 불안정한 조청관계를 배경으로 나타난 과도기적 도치로 볼 수 있음
- 원-고려의 경우와 달리 청-조선은 상호 필요성이 적고 거부감이 있어 더이상 추진되지 않았음